

2024년 12월 7일 열린 '람림' 보살계 수계법회. 법회는 '보리도차제(람림)' 과정에서 수학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봉행된다.



불교수행자 양성과정 1학년 학기말 시험을 치루는 수강생들.



연례적으로 봉행되는 대비관음불 모래만다라 성취기도. 의례에 따라 여법하게 모래로 조성된다.

한국서 만나는 티베트 불교 교육의 진수

'삼학설행사' 불교 수행자 양성과정 현장

박영빈 객원기자

"사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작용하는 것입니다."

"작용하는 것이면 모두 사물에 충족합니까?"

"되(그렇다)."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삼학설행사(탑숨셰둡링). 기초 인명학 수업에 참석한 법당에서 불자들이 삼삼오오 조를 만들어 대론을 하고 있다. 일부 용어들은 티베트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모두 진지하게 논서를 보며 문답을 이어나간다.

2014년 개원한 이곳은 남인도 간댄사원에서 온 텐진 남카 스님이 지도하는 티베트 불교 사원이다. 사원의 이름은 달라이라마가 지은 것으로 '삼학을 설하고 실천하는 도량'이라는 뜻. 도량의 이름에 맞춰 불자들의 교육과 수학을 최우선하는 이곳에선 2024년 4월부터 티베트 불교 전통 강원체계에서 중요한 핵심들을 뽑아 한국인들 맞춤 4년 과정의 '불교 수행자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지난해 12월 14일 90명의 불자들이 1학년을 마쳤다. 주지 남카 스님은 이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한 목적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수행을 통해 해탈과 성불에 이르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불교 수행자 양성과정은 '불교철학', '인명학', '보리도차제(람림)', '밀교'의 교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법회와 법문을 진행하던 것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신규 등록자는 온라인, 기존 등록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이뤄진다. 또한 격주로 스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수강생 각자의 이해를 돕는다. 한 학기에 4개월 가량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실제 학교 교과과정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방학과 기말시험이 있으며 출석률 등의 성적에 따라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과정은 불교의 교학과 수행의 균형을 맞추고 그 이해를 심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불교철학'은 수많은 불교의 경전과 논서들에서 말하는 철학체계를 단계적으로 수학해 교학의 체계를 논리적이고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달라이라마가 기획한 〈불교과학총서〉를 교재로 이용하는 이 강좌는 불교철학의 4대학파로 불리는 경량부, 설일체유부, 유식, 중관의 순서로 익히게 된다. 주 교재인 〈불교과학총서〉는 총 4권으로 이중 1권인 '물질세계'편은 2022년 한국어로도 번역돼 출판된 바 있다. 2권은 정신세계, 3~4권은 사상적 견해를 다루며 현재 삼학설행사에서 번역 중이다.

'인명학'은 인도불교에서부터 전해오는 불교논리학이다. 흔히 티베트 사원에서 박수를 치며 격렬한 대론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인명학을 수학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인명학의 기초인 섭류학(攝類學)을 수학하며 경량부와 유식의 공통된 견해를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대론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

텐진 남카 스님 지도하는 교육도량

2024년 4월부터 시작…4년 과정

티베트 강원 체계 핵심 선별 교육

교학 실천 위한 명상 교육도 진행

오는 3월부터 신규 양성과정 시행

는 한국어로 대체하기 어려운 관계로 티베트어를 그대로 사용되지만 수강생들은 "논리를 익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오히려 주고받는 대론이 즐겁고 재밌다는 반응이다.

'보리도차제'는 14세기 티베트 최고의 고승으로 꼽히는 쫑카빠 롭상닥빠 대사의 저술로 초발심의 귀의부터 보살행의 실천, 마음 닦기, 성불에 이르기까지 수행의 과정을 각각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보리도차제〉는 국내에 여러 차례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으나 삼학설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하고 정리한 교재를 이용한다.

'밀교' 과목은 밀교의 명상법이나 철학체계 등을 수학하는 과목으로 신입생에게는 바로 열리지 않으며 '불교철학'과 '보리도차제'의 두 수업에서 모두 일정 단계까지 수학한 후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삼학설행사에서는 이 같은 교육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특정 주제에 관한 세미나나 수강생들 간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명상특강이나 보살계 수계법회 등을 개최한다. 수강생들은 "일반 사찰에서도 보살계 수계법회 등이 있지만, 오랫동안 직접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듯 수계를 받으니 더욱 의미가 깊고 감동도 남다르다"며 소감을 전했다.

1학년을 모두 마친 수강생들의 감회도 남달랐다. 특히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덕에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좋았다는 소감도 있었다.

과정에 참여한 한 스님은 "출가자로서 오랫동안 교학을 연찬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핵심들을 골라서 공부하기는 어렵다. '족집게 강의'란 것이 이런 것 아닐까 싶다. 이 배움이 참다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수강생은 "불교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환희심을 가지고 공부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학에 무지했는지, 수행의 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지 실감했다. 가슴 깊숙이 표현하기 어려운 짜릿한 감동이 이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소회했다.

삼학설행사는 기도정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카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교학을 배워야 하고, 이 교학을 꽃피우는데 뒷받침 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다. 지혜와 공덕은 두 다리와 같이 어느 한쪽이 부족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복덕구족을 위해서 삼학설행사에서는 연례적으로 '대기원법회'와 '대비관음불 모래만다라 성취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대기원법회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발전하고 널리 펴지길 기원하는 기도다. 〈보리도차제〉를 저술한 쫑카빠 대사가 시작한 기도법회로 티베트 불교 사원들에서 매년 초에 봉행한다. 남카 스님은 "한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기도법회를 보았지만 불법의 지속과 발전을 바라는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이에 티베트에서 봉행하는 대기원 법회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비관음불 모래 만다라 성취기도'는 십일면천수천안관음불의 모래 만다라를 조성하고 봉행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관음보살이라고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밀교의 영향으로 이미 부처의 경지에 오른 본존으로 보기에 관음불이라고 칭한다. 삼학설행사의 모래 만다라는 시작부터 회향까지 모든 과정을 밀교의 의궤에 맞춰 봉행한다.

한편, 삼학설행사는 불교수행자 과정의 신규 과정을 오는 3월 개강한다.

